

조용필 음악 50년의 한국 대중음악사적 의의 연구

최현우¹, 양은영^{2*}
¹포스텍 기계공학과, ²포스텍 인문사회학부

Cho Yong-Pil's 50 years of Music and the Korean Popular Music History

Hyeon-Woo Choi¹, Eun-Young Yang^{2*}

¹Department of Mechanical Engineering, POSTECH

²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OSTECH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데뷔 50년을 맞은 조용필 음악의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 대중음악사적 의의를 평가하는 것이다. 조용필이 활동한 196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대중음악사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기성세대의 트로트와 젊은이의 록이 유행했던 시기,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소프트 록과 헤비메탈, 발라드가 혼재했던 시기, 2000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후크 송 중심의 댄스음악이 음악시장을 석권한 시기이다. 음악사의 변곡점마다 조용필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넘나들며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첫 번째 시기에는 트로트와 록을 접목하여 한국 고유의 정서를 담은 록음악을 발표하였고, 두 번째 시기에는 록의 전성기와 발라드의 태동기에서 두 장르 모두의 발전에 기여한다. 세 번째 시기에는 후크송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으나 댄스 음악 장르에서도 보컬의 가창력이 중시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주제어 : K-pop, 조용필, 한국대중음악사, 트로트, 록, 댄스음악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Cho, Yong- Pil's contribution on K-Pop history as he celebrates the 50th anniversary of his debut. The history of K-Pop, when Cho has been active in,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From the late 1960s to the early 1980s was a period when trots and rocks were popular. Soft rock, heavy metal, and ballads came in from the mid-1980s to the early 2000s. From the late 2000s to the present, dance music, mostly hook songs, has dominated. In every inflection point of K-Pop history, h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throughout various musical genres. In the first period, he introduced rock music with the unique emotion of Korea by combining the trot and the rock genre. In the second period, h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both rock and ballad genres. In the third period, his hook songs were released to the controversy, but it contributed to creating an atmosphere in which the vocal ability of the vocalist in idol groups was emphasized in the K-pop scene.

Key Words : K-pop, Cho Young - Pil, Korean popular music history, Trot, Rock, Dance Music

1. 서론

조용필은 1968년 록그룹 애프터스쿨로 데뷔한 이래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는다.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50년

동안 꾸준하게 히트곡을 내놓은 가수는 '가왕' 조용필이 거의 유일할 것이다. 문화평론가 박준흠이 '대중음악계에 서 조용필이 차지하는 비중은 ... (중략) ... 제주도에서 한 라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조용필

*Corresponding Author : Eun-Young Yang(eun0yang@postech.ac.kr)

Received August 7, 2018

Accepted August 20, 2018

Revised August 13, 2018

Published August 31, 2018

은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용필 음악의 한국 대중음악사적 의미를 짚어보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조용필이 활동한 1960년대에서 2010년대의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의 변화를 고찰해 본 후, 조용필의 주요 앨범에 나타난 시대별 음악적 특징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조용필이 한국 대중음악사에 남긴 업적을 평할 것이다.

2. 문헌 연구

2.1 한국 대중음악사에 나타난 세 번의 과도기

한국 대중음악의 첫 번째 과도기는 1970년대이다. 이 시기에는 오랫동안 유행했던 트로트가 여전히 대중음악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미군 공연을 계기로 록 음악이 유입되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한 시기이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록음악은 vocal, electric guitar, drum, bass guitar의 편성으로 구성되며 1970년대 이전에 유행했던 감성적이거나 간드러지게 부르는 트로트의 창법과는 달리 거칠게 내지르는 것이 특징이다[1].

두 번째 과도기는 소프트 록(soft rock)과 헤비메탈(heavy metal)로 구분된 록 음악과 발라드가 등장한 시기이다. 발라드는 트로트와 유사한 음악이었으나 이후 ‘록발라드’로 발전하며 주류 음악으로 자리매김한다[2]. 서정적인 멜로디를 강조하는 들국화, 다섯손가락 등의 soft rock과 빠른 템포와 내지르는 듯한 기타솔로, 보컬을 중시한 부활, 백두산 등의 heavy metal 그룹이 주를 이뤘지만 발라드는 90년대 신승훈, 조성모 등의 유명 가수를 꾸준히 배출하며 2000년대 부활, 엠씨 더 맥스 등 밴드 세션에 발라드를 노래하는 록발라드의 전성기를 열게 된다[3].

세 번째 과도기는 80년대 후반 혹은 90년대 초반에 댄스 음악이 출현한 시기이다. 록발라드가 주류 음악이 된 이후에 록발라드가 배제된 새로운 스타일의 댄스 음악이 등장했다는 시기적 구분보다, 현재의 음악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후크송(hook song)’이라 불리는 록, 발라드, 댄스 음악이 혼재된 음악이 주를 이루었던 시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4]. 2010년대 이후 현재까지 주류를 이루고 있는 ‘후크송’은 주로 단순한 영어로 된 짧은 모티브를 받

복하여 짧은 시간 안에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획된 노래들로, 4분 내지 5분 정도의 긴 곡 전체를 듣는 것을 지루해하는 현대인들을 사로잡기에 적합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팝의 주류로 성장했다[5].

2.2 조용필 음악의 시기별 특징

조용필의 데뷔 앨범은 <Lead me on>을 비롯한 몇몇 곡을 수록한 앨범이지만 조용필의 1집 앨범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음악사적 의미는 찾을 수 없다. 그가 나름의 음악 철학을 가지고 흥행에 성공한 앨범인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그의 첫 흥행작이다. 2/4박자의 원곡 트로트를 4/4박자로 편곡해 발매하게 된다. 히트를 한 트로트 곡인 ‘돌아와요 부산항에’, ‘창 밖의 여자’ 외에도 빠른 박자의 ‘너무 짧아요’, ‘단발 머리’ 등이 실려 있으며, 각각 록과 디스코의 초기 형태를 띤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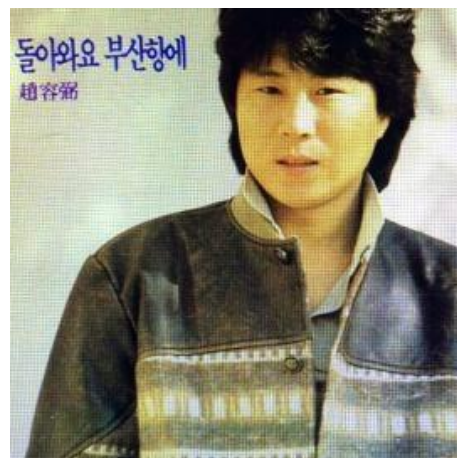


Fig. 1. 'Come back to Busan port' album cover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앨범은 7집으로, 여기에는 경쾌한 록인 ‘그대여’, ‘여행을 떠나요’와 같은 드럼, 베이스, 전자 기타의 소리가 두드러지는 록의 형태를 띠면서도 한국의 대중적 감수성이 묻어난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7]. 해당 시기인 80년대의 조용필은 최고의 인기를 구가 하던 시기로, 이후 10여 년 동안 라이벌 없는 최고 인기 가수로 자리매김했다[8].

마지막으로 그의 가장 최신작인 2013년의 19집 앨범 <Hello>를 주목해야 하는데, 조용필은 놀랍게도 후크송(hook song)을 발표한다[9]. 히트곡 ‘bounce’는 후렴구에 짧은 ‘bounce’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전형적인 후크송의

형태를 보여주며, 심지어 타이틀곡 'Hello'에는 래퍼 버벌진트의 랩도 등장한다. 록과 후크송 그리고 힙합의 결합은 1980년대부터 런 디엠씨(Run-DMC.)와 에어로스미스(Aerosmith)의 콜라보레이션 등 해외 선례가 있었지만 국내에선 최초로 시도된 것이었으며, 록의 선구자 격인 조용필이 시도했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했다.



Fig. 2. 'Hello' album cover

3. 조용필 음악의 대중 음악사적 의의

3.1 트로트와 록의 결합을 시도

앞서 말했듯이 대중음악은 이전까지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시장을 지배하던 트로트와 신세대들 사이에 퍼지던 록으로 양분됐다. 트로트 장르에서는 남진과 나훈아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며 전성기를 맞이했고, 신중현과 엽전들, 산울림, 조용필 등이 이끌던 록이 새로이 등장하면서 대중음악계가 양분되었다.

그러나 해당 시기의 두 장르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 힘들었다. 즐겨 듣는 세대부터 달랐다. 한, 그리움의 정서를 다루는 트로트와 젊음, 이상 등의 정서를 다루는 록 음악은 악기와 형태라는 표면적인 요소뿐 아니라 다루는 정서부터 융합되기 힘들었다. 신중현과 엽전들, 산울림 등 대부분의 록 밴드들은 청년 세대를 공략할 수밖에 없었다.

조용필의 음악이 음악사적 의미를 갖는 점이 바로 이 점이다. 조용필이 처음 흥행에 성공한 앨범은 <창밖의 여자>로, 곡의 형태는 트로트이지만 록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간주의 기타 솔로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차라리, 차라리, 그대의 흰 손으로 나를 잠들게 하라'라는 노랫말을 써서 당시 학생 운동이 한창이던 젊은 세대의 호응을 얻는데 성공한다. 더욱이 같은 앨범에 디스코 풍의 '너무 짧아요'와 '단발머리'와 같은 록 장르의 음악까지 선보였는데 이 곡들은 아직까지도 리메이크될 정도로 여러 세대의 공감을 얻는 불후의 히트곡이 되었다 [10]. 미군 부대에서 록을 기반으로 음악을 시작한 조용필이었지만, 록의 형태와 정서만을 고집한 동시대의 록 밴드들과 달리, 조용필은 록의 형태에 트로트의 정서를 녹여 내거나, 트로트의 형태와 록의 정서를 혼합하는 두 장르의 융합을 시도했다.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그는 무명가수에서 기성,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가수로 발돋움한다. 이로써 조용필은 한국에 적합한 정서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게 되었고, 한국의 대중음악은 조용필로 인해 트로트와 록을 성공적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3.2 soft rock과 ballade로 다원화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후반까지는 서정적인 정서를 중시하는 soft rock과 강렬한 sound를 중시하는 Heavy metal이 전성기를 이뤘으며, 그 사이에 트로트와 유사한 형태를 띠던 발라드 또한 꾸준한 진화를 통해 주류 음악으로 자리 잡았던 다양한 장르가 인기를 끌었던 다원적인 시기이다[11].

들국화의 1집 앨범 <들국화>는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히트곡이 당시 청년 운동의 주제가 역할을 하며 최 전성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록을 이끌었다. 한편 헤비메탈 록은 부활, 시나위, 백두산 세 개의 밴드를 중심으로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전까지 꺾는 창백 등 트로트와 유사했던 발라드는 이 시기에 유재하, 김광석, 김현식 등의 포크가수 들을 통해 최근의 발라드에 더 가까운 모습으로 발전해나갔다.

이러한 다원화된 시기의 한국 대중음악의 특성을 모은 축소판이 바로 조용필 7집(1985)이다. 타이틀곡 '여행을 떠나요', 히트곡인 '그대여' 등은 빠른 록의 형태를 띄고 있어, 록 밴드들과 함께 록의 전성기를 이끈다. 한편, 위대한 탄생의 밴드 키보드 세션으로 참여했던 故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를 작곡자인 유재하 (1987)보다 2년 먼저 7집 앨범에 실었는데, 여기서 조용필 특유의 음색을 배제하고 무명의 포크 가수 유재하의 모창을 했다.

당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기를 누리던 조용필이 이 곡을 발표해서 대한민국 전 세대에 각인시켰다.

이 곡의 인기로 인해 록의 전성기와 발라드의 태동기에서, 조용필은 여러 록 밴드들과 함께 본인의 뿌리였던 록 음악을 이끌면서도 의도치 않게 발라드의 발전에 자양분을 제공하게 된다. 또 그 뒤를 이어 8집 <허공>을 발라드 앨범으로 발매하게 되는데, 조용필의 성장에 이바지한 유재하의 발라드 곡의 흥행으로 인해 주력 장르가 바뀌는 조금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Fig. 3. The first album of Sinawe, 'Heavy metal Sinawe' album cover

3.3 후크송에 도전

2000년대 초반까지 록, 발라드, 댄스 음악으로 음악 시장이 다원화 되었다면, 200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댄스 음악, 그 중에서도 '후크송'이 음악시장을 석권하고 있다[12]. 록은 솔로로 활동하던 김경호의 성대결절로 인한 휴식기를 끝으로 마이너 장르로 전락하게 되었고, 발라드는 버즈, 엠씨 더 맥스 등 발라드 밴드들과 디셈버, SG 워너비 등의 발라드 보컬 그룹의 해체 및 군 입대 이후 이전의 전성기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한다. '힙합' 장르가 또 다른 인기 장르로 떠오르기는 했으나 쏟아져 나오는 댄스 음악에 비해서 그 인기가 일부 팬 층에 편향된 경향이 있다[13].

장르 획일화 물결 속에서 원로 가수들은 대부분 본인의 장르를 고집한다. 이미 팬 층을 확보했거나 이미 팬 층을 확보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이므로 굳이 본인의

장르를 버리거나 새로운 장르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 이라고는 할 수 없다. 모두가 시장성 있는 장르를 도입하면 음악의 다양성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악 또한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14]. 그러나 메이저 장르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 또한 지양되어야 한다.

본인의 장르를 완고하게 지키거나 심지어 대부분의 원로 가수들이 '후크송'을 비난하던 상황에서, 대부분의 원로 가수들의 존경을 받던 조용필의 19집 앨범 <Hello>는 가히 파격적이었다. 음색만 조용필일 뿐, 음악적 스타일은 완전한 '후크송'이었다[15]. 히트곡인 'Bounce'의 후렴구는 'bounce'가 계속되었고, 'you make me bounce'라는 짧은 영어 문장을 삽입하는 것 또한 여느 아이돌의 음악과 다를 바 없었다. 심지어 타이틀 곡 'Hello'는 래퍼 버벌진트가 참여했는데, 이 또한 젊은 세대 가수들에게 익숙한 행태였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싸이의 '젬틀맨'을 누르고 각종 음원차트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다.

안 그래도 성역화 되어 비판이 금기시된 가왕 조용필이 후크송의 흥행에까지 성공하니 '후크송'을 비난하던 의식 있는 음악가 취급을 받던 기존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음악성에 논란이 일던 후크송이 대중 음악계 최고 권위를 지닌 가수라는 방패를 얻은 것이다. 이후 '실력과 아이돌', '실력과 아이돌'이라는 단어가 생겨났고, 댄스 그룹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멤버의 '가창력'을 중시하며 후크송을 부르는 가수도 음악성을 평가 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돌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오디션 프로그램도 양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외모나 스타성만을 중요시하던 초기 '후크송' 문화에서 탈피하여 가창력을 겸비한 가수를 원하는 문화가 조성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데에는 조용필의 역할이 컸다.

4. 결론 및 토론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석권과 같이 오늘날의 K-pop의 성과의 뒤에는 세대를 아우르며 시대를 관통하는 존재감을 가진 조용필 같은 선배들이 가요사의 변곡점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온 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중음악을 트로트와 록의 혼재, 록의 전성기와 발라드의 태동, '후크송'

으로의 획일화 세 시기로 구분했으며, 변화 과정에서 조용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 조용필은 대중음악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정리해보았다.

첫째, 트로트와 록이 각자의 세대를 노리며 대립하는 중에 조용필은 트로트의 형태에 젊은 세대의 감성을, 록의 형태에 기성 세대의 감성을 담는데 성공했으며,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수로 성장한다. 또한 한국 대중음악은 조용필에 의해 두 장르의 융합에 성공했으며, 한국의 고유의 정서를 담은 한국만의 록이 발전할 수 있었다.

둘째, 록의 전성기와 발라드의 태동기에는 전성기를 이끌던 록 밴드들과 함께 여러 록 음악 히트곡을 발표했을 뿐 아니라 유재하라는 가수와의 협업을 통해 발라드의 인기에 시동을 건 후 발라드의 상승세 속에서 조용필 또한 발라드 앨범을 발매한다. 그러나 해당 시기의 조용필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거나 발전시켰다고 보기는 힘들다. 발라드의 발전에 이바지했지만, 본인 밴드 유재하의 곡을 빌려 썼을 뿐이다. 록의 전성기에 록 음악을 발매하긴 했지만, 실험적인 곡 보다는 한국의 정서에 맞도록 흥행을 위한 곡 위주로 발매했다. 해외 록 그룹 못지않게 새로운 음악에 도전했던 부활, 백두산, 시나위 세 그룹에 비해 음악의 혁신성은 떨어졌다고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후크송’의 물결 속에서 록 음악에 ‘후크송’을 결합하여 흥행에 크게 성공하여 후크송에 대하여 냉소적인 원로가수들의 시선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음악계에서 ‘후크송’ 가수들도 외모나 스타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가창 실력을 인정 받아야만 하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다. 해당 시기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모두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다. 물론 원로 가수와 신인 가수의 공동 작업과 가수들의 음악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선 한국 대중음악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본인의 명성에 기댄음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다. 만약 ‘가왕’이라 불리던 조용필이 아니었다면 흥행을 위해 록을 버리고 후크송을 택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대중성과 최소한의 음악성은 증명했으나 ‘후크송’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조용필 본인의 장르인 록의 비중을 높인 음악으로 도전에 성공했다면 좀 더 음악적 완성도가 높은 음악을 발표할 수 있었을 것이다.

REFERENCES

- [1] Y. J. Kim. (2008). *Korean popular music culture in Korea*. Paju: Korean Academic Information
- [2] J. H. Park. (2008). *100 popular Korean music albums*. Seoul: Sun
- [3] S. Kallen. (2012). *The History of Rock and Roll*. San Diego CA: Lucent Books
- [4] S. Jung. (2011). *Korean masculinities and transcultural consumption*.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 [5] B. H. Chua & I. Koichi. (2008). *East Asian pop culture*.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 [6] K. S. Oh. (2013). *Romantic Fantastical Age: Cho, Yong - Pil and the Popular Age of Popular Culture in the Analog Age*. Seoul: The morning of the world
- [7] S. J. Kim. (2013). *Dream whales even when you are sitting*. Seoul: Bulls Books
- [8] J. I. Seo. (2009). *365 days of pop music history*. Seoul: Embossed
- [9] I. D. Kim (2014). Study on Creative Transmission in Modern Popular Song : a case of Cho, Yong-pil, *Korean Folk Song*, 41, 7-34.
- [10] E. Y. Yang & I. S. Jeon. (2016). Globalization Strategy of Korean Traditional Music - A Case Study of Hybrid Rock Band Jambinai.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30(2), 46-64.
- [11] Y. H. Kim. (2015). Semantic Network of Korean Pop Songs - Changing meaning Structure from 1960's to 2000's.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21(1), 145-171.
- [12] Y. K. Jang et al. (2017). Biomechanical Comparison during Isolation Movement in B-boy and K-pop Dancer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7, 91-99
- [13] B. Im. (2012). I like Cho, Young-pil, *Moonhak Choonchu*, 80, 61.
- [14] D. Y. Lee & E. Y. Yang. (2017). From the Music of Ownership to the Music of Access: Transformation of K-Pop Standard in Online Digital Music Market. *Academic association of global cultural contents*, 27, 63-81.
- [15] H. G. Kang & H. J. Kouh. (2013). Music Pattern Analysis of K-POP.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11(3), 95-100.

최 현 우(Choi, Hyeon Woo) [학생회원]



- 2015년 2월 ~ 현재 :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통합 과정
- 2015년 2월 ~ 현재 : 밴드 GT LOVE 보컬 & 베이스
- 관심분야 : 역학, 음악
- E-Mail : hnu11@postech.ac.kr

양 은 영(Yang, Eun-Young) [정회원]



- 2005년 5월 :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음악대학 성악연주 및 문헌 박사
- 2018년 2월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대우 부교수
- 관심분야 : 음악, 문화예술경영, 문화기술
- E-Mail : eun0yang@postech.ac.kr